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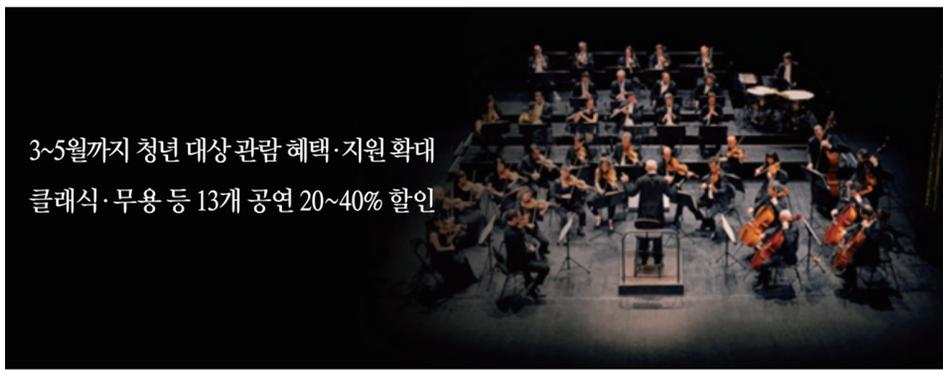
인천문화예술회관, 청년 관람 문턱 낮춰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이 봄철을 맞아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는 총 13개 공연에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회관은 해당 기간 개최되는 공연에 '청년문화예술패스'와 '문화패스'를 연계 운영해 청년층의 문화 접근성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9~20세(2006~2007년생) 청년에게 공연·전시·영화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관람비를 포인트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에 속하는 청년은 인천문화예술회관 공연 예매 시 지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공연별로 추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회관은 24세 이하 관객에게 할



3~5월까지 청년 대상 관람 혜택·지원 확대
클래식·무용 등 13개 공연 20~40% 할인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이 3월부터 5월까지 13개 공연에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프랑스 오베르뉴론알프 국립 오케스트라 공연 모습.

인천광역시

인 혜택을 제공하는 '문화패스'도 함께 운영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금은 '문화패스' 적용 공연에도 사용할 수 있어 지

원금 사용과 할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되는 봄 시즌 공연

은 클래식, 무용, 연극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됐다.

회관은 이번 봄 시즌 총 13개 공연에 대

해 공연별로 20%에서 최대 4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상세 할인율과 예매 방법은 인천문화예술회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 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미래 관객을 형성하는 기반이다"라며 "청년 세대가 공연장을 일상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관람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선보여 문화 경험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지난달 25일부터 신청받고 있으며 지원 포인트를 받은 후 협력 예매처를 통해 사용 가능하다. 인천문화예술회관 공연은 '놀티켓'을 통해 예매한 경우에 한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인천=백동기 기자 dkbail@skyedaily.com



광명소방서가 이달의 모범 소방공무원 6명을 선정해 표창 수여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광명소방서

광명소방서, 서성미 소방위 등 이달의 모범 소방공무원 표창

경기도 광명소방서가 '이달의 모범공무원'으로 직원 6명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지난달 27일 광명소방서에 따르면 '이달의 모범공무원'은 맡은 바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조직 발전에 기여하거나,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동료들과의 화합에 이바지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하는 자체 시책이다. 이번 표창은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이번에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은 △소방위 서성미 △소방위 김우철 △소방장 송원 △소방장 이학준 △소방교 김미진 △소방교 손한민 등 6명이다.

수상자 대표로 소감을 밝힌 서성미 소방위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동료들과 함께 받은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욱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유해공 서장은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준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포상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이 되어 더 나은 광명소방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백동기 기자 dkbail@skyedaily.com

청소년 100명의 목소리 광명시 정책 주춧돌 된다

이달 31일까지 제3기 청소년위원 모집

2027년 3월까지 시정 참여·정책 활동

경기도 광명시가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청소년 정책 참여 기반을 넓힌다. 시는 31일까지 2026년 제3기 청소년위원회 위원 100명을 모집한다.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 시정 참여 확대와 권의 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시장 직속 청소년 대표기구다. 정책 제안과 토론, 지역 현안 발굴 활동을 수행하며 청소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모집 대상은 9세부터 18세까지의 광명시 거주 청소년 또는 지역 내 학교에 재학하거나 근로 활동을 하는 청소년이다.

선발된 위원에게는 광명시장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한다. 또 우수 위원에게는 시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은 광명시 누리집에서 지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네이버폼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승원 시장은 "청소년이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다"며

모집 대상은 9세부터 18세까지의 광명시 거주 청소년 또는 지역 내 학교에 재학하거나 근로 활동을 하는 청소년이다.

선발된 위원에게는 광명시장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한다. 또 우수 위원에게는 시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은 광명시 누리집에서 지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네이버폼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승원 시장은 "청소년이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다"며



지난해 시청 대회의실에 열린 제2기 광명시청소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 박승원 광명시장이 청소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광명시

"청소년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광명=백동기 기자 dkbail@skyedaily.com

광명 지역서점, 지역화폐로 책 구입시 최대 20% 돌려줘

경기도 광명시 지역서점에서 책을 사면 최대 20% 혜택을 돌려준다.

지난달 27일 광명시는 1일부터 관내 지역서점에서 광명사랑화폐로 도서를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도서구입비 10% 캐시백'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인당 월 최대 1만 원까지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한다.

지역화폐 충전 시 제공되는 10% 인센티브까지 더하면 실질적으로 최대 20%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시민 체감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관내 지역화폐 가맹 지역서점에서 광명사랑화폐로 도서구입비를 결제하면 캐시백을 즉시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한다. 지급된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내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대형 쇼핑몰 입점 서점과 체인 서점을 제외한 지역서점 13곳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온라인 서점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서점의 매출 증대를 돕고, 지역 내 소비가 다시 지역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참여 서점은 광명시도서관 누리집 또는 홍보 안내문 내 QR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독서는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문화 활동이다"라며 "도서구입비 10% 캐시백 사업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서점에 새로운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명=백동기 기자 dkbail@skyedaily.com

평택시, 합계출산율 1.02 기록... 2년 연속 상승 경기도 3위

경기도 평택시는 합계출산율이 1.02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잠정 합계출산율에 따르면 평택시는 2024년 0.996에서 2025년 1.02로 상승하며 다시 1.0명을 넘어섰다. 2023년(0.92) 이후 2년 연속 상승이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하는 지표로, 한 지역의 인구 구조와 미래 인구 규모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인구지표다.

이번 수치는 전국 평균(0.80)과 경기도 평균(0.84)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평택시는 경기도 내 3위(화성시 1.09, 연천군 1.06)를 기록했다. 또한 인구 50만 이상 시군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 강서구와 경기 화성시에 이어 3위를 차지해 대도시 지자체 가운데서도 높은 출산율을 보였다.

평택의 출산율 상승은 산업 성장과 도시 경쟁력 강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평택은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분야 기업 투자와 산업단지 확장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고덕국제신도시·브레인시티 등 대규모 도시개발이 이어지면서 정주 여건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주거 환경은 청년층의 인구 유입 증가와 높은 혼인율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5년간(2020~2025년) 평택시 청년 인구(19~34세)는 1만 4271명 증가해 12.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



경기도 평택시 연도별 합계출산율 추이 2023~2025

평택=조철희 기자 cch@skyedaily.com

간 전국의 청년 인구는 6% 감소, 경기도는 4.5% 감소한 것과 대비되는 흐름이다.

또한 평택시의 혼인율도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5.0 이상을 매년 유지되고 있다. 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지표로 혼인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매년 전국과 경기도 평균을 웃도는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청년이 모이고, 혼인이 이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평택은 '가족이 탄생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일자리 주거 보육 정책 강화는 물론 정주 여건을 개선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조철희 기자 cch@skyedaily.com

부천호수식물원 수피아 야간 운영 재개

경기도 부천시는 호수식물원 수피아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주 2회 야간 개장을 운영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번 야간개장은 시민에게 야간 시간대 식물원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피아 내부는 구간별 특성을 반영한 테마 조명을 적용해 야간 관람 환경을 조성하며 반딧불이 조명과 외관 및 수목 조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주요 관람 동선을 중심으로 야간 경관을 연출한다.

아울러 외부 공간에도 경관 조명을 설치해 전체 공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야간 시간대 방문객의 이동 편의와 시인성을 높인다.

올해는 야간 방문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카페 메뉴를 확대하고 피자를 새롭게 판매해 관람객 선택 폭을 넓혀 야간 관람과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운영 개선으로 시민의 이용 편의가 향상되고 야간 관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야간 관람 운영 시간은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부천 공공서비스'에 약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관람료는 성인 기준 3000원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야간 개장을 통해 시민에게 다양한 관람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보안을



부천호수식물원 수피아 야간 전경.

부천시

통해 운영의 완성도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피아 식물원은 야간 개장을 통해 시민에게 다양한 시간대의 관람 기회를 제공해 왔으며 시는 축적된 운영 경

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조명 연출 구간을 확대해 야간 관람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부천=백동기 기자 dkbail@skyedaily.com



청년기본소득 안내 디지털 홍보자료. 안산시

안산, 스물네 살 청년 모여라 3일부터 청년기본소득 접수

경기도 안산시가 3일부터 4월1일까지 한 달간 '2026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준비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지급 수단을 지역화폐로 운영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번 1분기 지급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2001년 1월2일생~2002년 1월1일생)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이 안산시 지역화폐 '다온'으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은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하고 지역화폐로 결제 수단이 연동된 모든 항목에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특히 △학원수강료(외국어·제과제빵·세무회계·간호·뷰티 등) △사립유치원(아학·자격증) 분야는 사용처가 확대돼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이달 3일부터 4월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안산=백동기 기자 dkbail@skyedaily.com